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신고내용 확인·가산세 등 제외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 공제 사전심사를 받으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등으로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을 받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30일 연중으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받는다면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앞서 쓴 비용만이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 화면도 제공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건수 2020년 1547건, 2021년 2332건, 2022년 24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연말정산, 사이트만 믿으면 큰 코 다친다... 교복·기부금·보청기 별도 영수증 제출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태)은 27일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공개했다.

연맹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는 자녀는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의 경우 따로 거주하

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가운데 단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 재혼한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융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내역이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의료비, 따로 사는 동생 대학등록금, 유학 중인 자녀교육비, 근로자 본인 해외대학원 교육비 등도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으로 꼽혔다.

실거주 목적 분양권 취득한 1주택자, 3년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2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내에만 처분하면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및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처분기한에서 1년 연장된 수준이다.

해당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 및 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된다.